

연중 제II주일

기도서 P. 371 C해

제1독서(사무후 12, 7-10. 13)
제2독서(갈 라 2, 16. 19-21)
복 음(루 까 7, 36-8, 3)

숨 정 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강 론



거 짓 말

박 창 신 신부

양치던 소년의 거짓말로 소년 자신도 죽고 양무리까지 죽게 했다는 이솝 우화가 생각난다. 거짓말은 現實의 歪曲이며, 眞實의 반대이다.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든다. 진실이나 거짓이나 하는 것은 相互信賴에 관한 문제가 된다. 자타의 個人 사정을 말 없이 간직해 두려는 것은 人之常情이다. 그러나, 자신을 내어 보이지 않고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음모를 위한 거짓말은 제일 큰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또한 사랑과 신뢰심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개인의 거짓말이 파멸을 가져오듯, 더욱 사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이 난무한다면 불신의 대혼란과 파멸이 따른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범죄보다 거짓말은 공동체를 쪼개는 악의 세력중에 두목이라 말할 수 있다. 상호 신뢰속에 있지 않는 사회는 힘없는 사회이며,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할 수 없는 사회인 것이다.

지금도 종교는 기도만 하라는 소리가 들린다. 기도만 한다면 오히려 돌들이 우리 대신으로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오늘 제1독서(사무엘 하 12, 7-15)에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며,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징으로 나온다. 다윗 왕에게 힐책하는 나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물이다. 왜냐하면, 구약성서 안에서 개인은 공동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나단과 같이 교회는 이 세상의 惡에 대항하여 소리를 쳐야 한다. 우리야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한 음모 때문에 우리야를 앞문의 군의 칼에 맞아 죽게 했던 다윗에게 나단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꾸짖는다. “너희 집안에 칼부림 가실 날이 없으리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바로 있었던 광주의 참상이다. 지금도 광주는 불량배, 극렬분자, 폭도라는 거짓의 칼부림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속에서 다시 폭력이 탄생할 것이라는 광주 대교구 윤대주교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새겨 보자.

다윗이 “내가 야훼께 죄를 지었소” 하고 죄를 고백하자, 힐책하던 나단이 임금님은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하느님의 용서를 전한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다윗의 진실된 고백이 우리 사회를 혼란속에 빠지지 않게 하는 치유임을 잘 알자, 거짓이 악의 덩어리로 난무하지 않고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는 신뢰의 사회야말로 누가 강조했던 진정한 총화이며, 공산주의를 이기는 강한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맙시다. 거짓없는 사회를 이룩합시다.
(여산 천주교회 주임신부)



사 지(四知)

—그만 웃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감추려 드는 모습처럼 추한 것은 없다. 감추다 보면 분명한 사실을 없다고 억지쓰며, 없는 일을 있다고 폐거지를 쓰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순리가 아니므로 물리적인 폭력이 뒤따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비극이다. 이러한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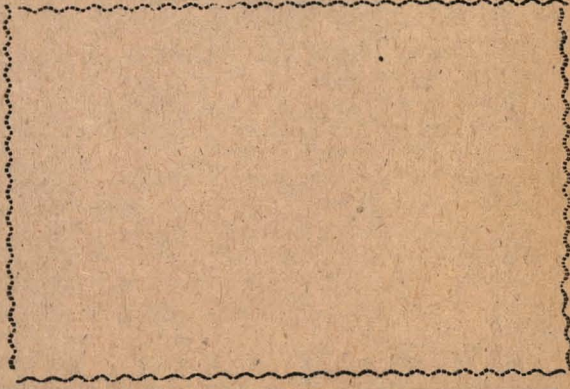
요사이 <해바라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밝은 태양을 따라 도는 해바라기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그리는 강한 열매이다. 그런데도 왜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날 이 땅의 해바라기들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향한 경건한 몸짓을 포기하고, 「권력과 부귀와 명예」만을 쫓는 저속한 해바라기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어찌던 사상체제가 뒤바뀌어도 어찌 될런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일 것이다.

한때 우리나라 정치사상, 어떤 특정인의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 우의(牛意)와 마의(馬意)까지 동원된 때가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온갖 단체들의 성명서가 신문지상을 새까맣게 하여 연일 우리의 눈을 피로하게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지조도 없이 옛그체의 주장을 뒤집어 얽는 성명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뜻있는 시민들은 “또 때가 되었구나” 하는 개탄을 한숨으로 흘리는 서글픈 역사가 이땅의 그것이다.

역사는 언젠가 온갖 사건들의 실체를 밝혀준다. 어거지를 쓰는 강변(強辯)들이 아무리 독에 핏대를 올려도 소용없다. 눈을 부라려도 소용이 없다. 안개는 언젠가 걷히기 마련이고, 안개가 걷히면 우리는 밝게 사물을 볼 수 있으니까.

옛 선비는, 비록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비리(非理)는 거부했다. 단 들이 앉아서 건네는 거라라도 「하늘이 알고(天地) 땅이 알고(地知) 내가 알고(子知) 내가 알기(我知)」 때문이다. 성경 말씀처럼 「감추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 잔재주는 그만 두자.

숨 정 이 산책



광주사태 수습을 위한 주교님의 편지

다음 글은 지난 6월 2일 개최된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밝혀진 광주 대교구장 윤대주교님이 대통령께 드린 호소문이다. 너무도 절박한 상황속에 두차례나 눈물로써 호소하신 우리 목자의 절절한 탄원 이기에 우리 모두의 것으로 함께 하면서 주교님들과 더불어 공개리에 다시 진정코자 하는 바이다.

존경하는 최규하 대통령 작하

계엄군의 재투입으로 이번 광주사태가 끝나게 되기 전날의 절박한 지장 가운데 준비하였던, 각하께 드리는 저의 글월을 그대로 여기 동봉하여 보내드립니다. 그것은 현재로서 광주사태가 일단락 된것으로 보시는지 모르지만, 위 글월에서 제가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하께 호소하고자 하였던 같은 뜻을 지금이라도 각하께 말씀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삼일간에 듣기로는, 광주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해온 수습위원들에 대한 연행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수많은 시민 학생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하께서도 친히 약속하신바대로, 최대한의 관용이 배풀어지며, 무엇보다도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사태의 진정하고 항구적인 수습이 되고, 나아가서 진정한 국민적 화합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각하의 만안하심을 하느님께 빕니다.

1980. 6. 2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 대주교 윤 공 희

존경하는 최규하 대통령 작하

어젯 밤에 상무대 계엄분소에 다녀가시면서 녹음 발표하신 담화문을 감사로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광주 시민들과 또 온 겨레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시련때문에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이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간망하시는 각하의 애절한 소망과 호소에 감격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러나 각하의 말씀과 심려가 광주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 계엄분소까지 오셨으면 광주시민을 대표할만한 사람들 특히 수습대책위원들을 불러서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으셨을터인데, 계엄분소 군인들과 관에 제시 분들만 만나보시고 그대로 돌아가셨더군요. 그리고 녹음 발표하신 담화는, 사태수습에 대한 소망만은 간절하셨으나, 이 사태의 원인은 보려하지 않으셨거나 언급하려 하지 않으셨더군요. "원인이야 어쨌던" 하시고 묵살하고 마셨더군요.

그러나 사태의 원인을 알아 보시지 않고(또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 수습만을 호소하시는 것은, 진정한 호소력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사태의 올바른 처리의 책임을 가지신 분의 그러한 회피는 사태를 당장에 더욱 악화시킬 위험마저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사태를 고질 만성화시킬 위험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무지막지한 큰 아들로부터 형편없이 얻어 맞고 쓰러졌던 작은 아들이 겨우 일어나서 형의 면살을 잡았는데, 아버지가 어찌 큰 아들은 쓰라들어 주며, 얻어 맞은 작은 아들에게는 참으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열집의 원수 녀석들이 곧 쳐들어 울터이니, 그래도 힘께나 쓰는 큰 아들이 요긴하고, 작은 아들이야 죽지 않았으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란 말씀입니까? 또는 작은 아들에게 "네가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야" 하고 타이르던 녀석하겠습니까?

광주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이 시위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습디다만)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계엄군이 광주시 곳곳에서 천인공노할 잔악한 행위를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한 가운데서 자행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딸들이 군인들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구둣발에 채어 유혈이 낭자한 채 길바닥에 쓰러지고 다 죽게 뺏어버린 채로 차에 실려가는 것을 본 시민들이 얼마나 격노하였겠는지를 각하께서는 곰곰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간단히 몇마디로 적은 이 정도의 만행은 이 글월을 올리는 저 자신도 직접 목격한 것이고, 이런 증언들은 광주 시민 누구를 만나서 물어보아도 수없이 많은 실증을 대번에 제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잔혹한 행위를 당하고 격노한 시민들에게 "지방색을 내세운 유언비어 때문에 속아가지고 공연히 흥분한 것이니 진정을 하시오" 한들 그 말이 먹혀들어 가겠습니까? 책임당국이, 광주 시민들이 말한 이러한 일을 몰라주고, 그와 같이 광주사태에 대해 왜곡된 해석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광주 시민들의 분노와 원한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 밖에 되지 못합니다. 광주사태의 발단에 있어서 저와 같은 사실적 요인을 100으로 친다면, 유언비어에서 오는 감정적 요인은 그 100에 "하나"를 더 보탬까 말까하는 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당국이 오로지 유언비어만을 사태발단의 설명으로 내세우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정부와 군의 책임을 감춰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사태에 대한 왜곡된 해석만을 내세우면서 사태수습을 호소한다는 것은, 아직도 더 어렵게 될 수 있는 현 사태에 새로운 불길울 하는 결과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는 계속 물리적 힘을 가함으로써 사태가 강압에 의해 진정되거나, 광주 시민들의 저항력이 꺾진해서 저절로 사태가 가라앉는다고 한다면, 광주 시민들의 격분은 백년의 한으로 응어리져 남을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인 국민총화를 위해 크나큰 저해요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작하

광주사태의 수습을 위해 지금이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태 발단의 진실을 정부와 군이 인정을 하고, 겸손한 사죄의 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고, 군인들의 만행에 대한 명령책임자를 엄중히 처단할 것을 약속하셔야 우선 급박한 현 사태의 수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하께서 이미 말씀하신바대로 그동안 광주 시민들의 항거시위에 대해서 이를 관용하여 불문에 부치시기로 한 것은 현실적에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절대로 요긴한 조건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군의 책임이 불문에 부쳐진 채(현재도 만행의 사실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광주 시민들의 책임만이 추궁된다면 또 다른 새로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태수습을 위해 다른 여러가지 적절한 조치를 벌써 강구하고 계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안심할 수 없고, 오히려 더욱 악화될 수도 있는 사태의 절박함을 내다보면서, 각하께 대한 끝없는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읍소하는 이 광주의 한 시민의 탄원 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간원합니다.

경황중에 이처럼 난립로 실례함을 용서하십시오.

1980. 5. 26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 대주교 윤 공 희 올림

성 모 의 밤 행 사 안 내

1. 1980. 5. 31 밤 8시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가장 복되시도다.
2. 제 1 부 미사 밤 8시
3. 제 2 부 성모의밤 8시 30분
4. 개회성가 (합본성가집 101번 성모의 성월)
5. 촛불집회 꽃 (화분) 과 초, 봉헌 - 각 단체별 성가합본 98번 (네 머리
를 꾸미오리) 끝으로 성모님께 드리는 축시, 축가
6. 묵주의 기도 (간주마다 성가 ... 아베 . 아베 . 아베마리아
아베 . 아베 . 아베마리아)
7. 성모성월 기도문 기도서 19 페이지
8. 루가복음 1장 46 절 ~ 56 절 ~ 마리아의 노래 P . 124.
9. 강 련
10. 신자들의 기도 - 사도회 , 애령회 , 요안회 , 학생회 , 부녀회 , 청년회
11. 성모님께 드리는 축가 합창단, 독창
12. 성모님께 드리는 우리의 약속
(선창자에 맞추어 합송)
 - 가. 우리는 신앙으로 주일미사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낼것을 성모님께 약속한다.
 - 나. 우리는 레지오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하느님 나라 건설에 최선의 노
력을 하기로 성모님께 약속한다.
 - 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교회사업
을 돕는 물질적인 감사에 인색치 않을것을 성모님께 약속한다.

폐회성가 (성가합본 100번 자모신마리아)

폐 회 사 신부님의 강부

여기, 사랑의 손길을.....

—코없는 막달레나 할머니—



20년의 신학교 생활을 마치고 사제가 된 후 본당 신부로서 나의 첫 부임지는 순창성당이었다. 내가 온지 두 달쯤 되어 공소 불판공을 처음 나간 곳은 본당에서 100리 떨어진 학선공소였다. 차에서 내리자 어떤 할머니가 정중히 인사하였다. 인사를 받고 나서 얼굴을 보니 코가 까맣게 썩어 있었고, 코에 다 조그만 흰 종이를 붙이고 있었다. 나는 기가 막혔다. 한편에서는 마이카 새데다, 여가선용이다 하고 생활을 즐기며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이 시

대에 할머니는 17년전에 코에 보두루지가 생기면서 발병했지만, 지독한 가난때문에 아직 한번도 병원이나 약국 문앞도 가지 못했다. 이 상황을 안 나는 한 인간으로서, 한 사목자로서 심히 괴로웠다.

할머니는 천당에 가야 된다는 일념에 살고, 오직 하느님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 할머니는 61세이나 27세에 혼자되었고, 37세가 되던 해 6월7일 저녁에 김용복 공소회장님이 버려진 한 아기를 맡기려고 이집 저집 다녔지만 거절당하여 할 수 없이 할머니에게 부탁하였다. 허약한 신체와 빈곤한 생활때문에 이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 아기를 하느님이 주신 생명으로 여기고 살리기 위해 젖을 얻어 먹였다. 여러 사람의 젖을 얻어 먹었으므로 설사와 식중독으로 날로 여위어갔다. 생각다못한 할머니는 고아원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다. 고아원에서는 아기뿔 배를 채워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아기를 고아원에 두고 떠나려다 뒤돌아 보니 아기는 새까만 눈동자로 가지 말라는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이것을 본 할머니는 아기를 붙들고 영영 울었다. 이제 무슨 일을 하는 주님이 내리신 이 갖난 생명을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고 아기를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날이 어두어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억센 비바람과 천둥과 번개까지 내리쳤다. 그날 저녁 겨드랑이에서부터 젖 땀우리가 생기기 시작하여 계속 통증을 느끼던중 3일째 되던 날 하얀 젖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아기는 기적적으로 나온 할머니의 젖을 먹고 아무 걱정없이 자라게 되었다.

무의무탁한 이 불쌍한 막달레나 할머니에게 신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은정을 쏟아 주시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 지난 5월 2일 서울 성가병원에 의뢰한 조직검사 결과 피부악성종양(코)이라는 병명이었습니다. 6월 4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재진찰 후 16일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주간의 입원과 3차례의 수술, 약품비 등으로 약 3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나 병원측의 협조로 50% 할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자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마태오복음 6장 3절~4절) 연락 530-50 순창군 순창읍 천주교회 <순창천주교회 주임신부>



사진자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매

유 광 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② 4448 • ① 2176

※ 전주역 앞

범모약국

전화 3-5319

김영춘(아오스당)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칠,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당)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주 직매점

주 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당)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②1377번

□ 정화 미용학원 학생모집 □

윤경미장원

(신부화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역전 앞

최윤경 (유리안나)

전화: ② 8653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작곡 시계)

주 이찰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② 8188 (자 ①0369)

도자기, 합죽선, 화문석, 필방, 특산물 일절

※ 교우님들 자주 들려 주세요.

백제공예

주 이협수(실비아)

전화 2-3908

(전주 우체국 앞, 풍남백화점 내)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로

문화양행

오종원(아오스당)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②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중·고등학생 연합회 회장단 1차 모임...6월 22일(일)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에서
※ 각 본당 학생회장, 지구장 참석 바랍니다.
 2. 제 7회 전주지구 중·고등학생회 친선 단합 체육대회...6월 15일(일) 오전 8시, 해성학교에서
※ 오전 8시 해성학교에서 제미사 있습니다.
 3. 5지구 학생회 임원선출...회장-이영우(남원), 부회장-최원규(산관)·오정옥(순창), 총무-박덕숙(임실)
 4. 6월 전모의 연기...7월 6일,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교구 인선회에 본당신부님께서 불우이웃돕기 지원요청 신청자중 보조한 본당...창인동(50만원), 순창(20만원), 장수(20만원), 무주(10만원), 광주교구(100만원)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성필
사도 회장 김병구

1. 설모회 : 공식미사후 강당
 2. 첫 영성체 : 14일, 어린이미사
 3. 부부생활과 영성체험 강의
18일(수) 오후 7시30분, 강사 : 문정현신부
 4. 신약성서의 여성관
25일(수) 오후 7시30분 강사 : 문정현신부
 5. 주일학교 : 부모님들 귀여운 자녀들을 매주 토요일 3시에 교리와 미사에 꼭 출석 보내 주십시오
 6. 각 썰의장, 부의장, 총무 모임
22일(일) 오후 3시, 강당
 7. 대학생회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모임 (성경연구) 본당내 모든 지도자 및 대학생들은 빠짐없이 참석바람
 8. 본당 살림도 어려워 졌습니다
교무금을 월별로 납부하십시오
 9. 순정이 신축기금 속히 납부해 주세요
 10. 중앙 신용 협동조합 가입 희망자는 주민등록, 인장 지참하시어 일요일 9시30분~12시30분까지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70,665원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정웅
보좌 신부 나박준
사도 회장 박준근

1. 인후동 아파트구역 특전미사 : 매주(토) 오후 8시 살롱복합당 2층(③3733)에서 있습니다.
아파트내의 모든 신자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 인후아파트(평화의 모후)레지오 마리에
매주(목) 오후 2시에 17동 104호에서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여를 바랍니다
 3. 본당 어머니미사 시간변경 : 매주(금) 오전 10시 30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성서강의 : 매주(월~화) 저녁 8시~9시까지
우리 다같이 성서의 보다 깊은 뜻을 알아봅시다
 5. 금주의 성경 읽기 : 구약의 역대기 상편 전체
다같이 읽어주세요
 6. 재속 청년회의 : 매주 저녁미사후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79,44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열
사도 회장 양상열

- ☆ 축영명축일 본당신부님 : 6월 29일
많은 기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1. 주일학교 교리 : 토요일 오후 3시, 미사-4시
 2. 중·고 4지구 체육대회 : 6월 15일 해성학교 운동장
 3. 예비자 교리 : 일요일 오전 11시-조신부님 지도
계속 교리가 있습니다. 7월 첫주부터
 4. 본당 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교무금 제시일에 납부 바랍니다
 5. 중·고학생들은 학생미사에 참석하세요
주일 오후 3시
- 지난주 봉헌금 : 220,235원
광주시민 돕기헌금 : 39,910원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영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파티마 성모상 가정순례
모실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신청바람 (3일간)
2. 푸름군단 가입 신청서 : 속히 사무실에 내주세요
3. 봉헌금 미수가 없도록 봉헌해 주시기 바람

4. 제 4지구 중·고생 친선 단합 체육대회
15일(주일) 오전 7시30분 해성학교에서
 5. 주일학교 어린이미사 책을 꼭 가지고 오도록 준비해
주세요(사무실에서 구입 800원)
 6. 친목의 날 특별헌금 준비바람 : 22일
- 지난주 봉헌금 : 281,270원

(서학동)

전화 ②27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함형수

1. 할머니회 : 공식미사후
 2. 반상회 : 저녁 8시 미사 및 반상회
17일(화)-8만, 18일(수)-9만, 19일(목)-10만
 3. 예비자 교리 : 공식미사후-수녀님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후-본당신부
 4. 특별헌금 모금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6월말까지 마감)
 5.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한형수, 신자들의 기도-김나균·장기호
- 지난주 봉헌금 : 138,965원 교무금 : 5,000원

(숲정이)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도

1. 설모회 웰레회 : 15일 공식미사후
 2. 청년회 웰레회 : 21일 오후 7시 30분
 3. 어머니 성가대 성가연습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4. 예비자 교리 : 매주 공식미사후
 5. 신축기금 내주신분 : 송사자(4만원), 오창석(5천원)
파티마본당 신일액중 : 43만 3천원
- 지난주 봉헌금 : 186,99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익
보좌 신부 유석
사도 회장 김수홍

1. 수녀님 이동 : 김빛다 수녀님(대구김천)
후일에 박사베리아 수녀님
 2. 영세식 : 6월 22일 10시미사중에
 3. 예비자 집중교리 : 6월 16일~21일까지 (17일은제의)
 4. 사도회 : 공식미사후
 5. 장우회 : 화단정리와 동굴청소함
 6. 피마시움 : 오후 2시
 7. 다음주(22일) 전례담당
아침미사 : 사회-이신희, ①배양길 ②박종구
공식미사 : 사회-이준영, ①이영태 ②이덕수
저녁미사 : 사회-김윤주, ①경양수 ②임순만
- 지난주 봉헌금 : 361,56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협

1. 4지구 체육대회 : 오늘 해성학교에서
많은 분들의 협조와 격려 참석바랍니다
 2. 민족 복음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레지오 마리에 많은 가입 바랍니다
 3. 미사시간 변경 : 수요일 저녁미사를-아침미사로
 4. 영세식 : 29일 오후 유아세례도 있습니다
(미리 사무실에 신청 해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 81,185원 어린이헌금 : 6,990원
교무금 : 68,000원